

解放前後 時期에 활동한 右派 政治指導者들의 自由民主主義 受容過程과 政治運動 ——李承晩・申興雨・金九의 경우에 대한 하나의 素描——

金 學 俊

- | | |
|-------------------------------|-----------------|
| I. 머리말 | IV. 李承晩의 思想과 行動 |
| II. 韓末의 政治思想的 분위기와 自由民主主義의 導入 | V. 申興雨의 思想과 行動 |
| III. 日帝下 抗日鬭爭期の 自由民主主義思想 | VI. 金九의 思想과 行動 |
|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解放을 前後한 時期에 활동한 右派 政治指導者들이 自由民主主義를 수용한 過程과 그것에 입각한 政治運動을 살피고자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글은 우선 李承晩과 申興雨 및 金九 세 사람을 택했다. 申興雨의 적은 나머지 두 지도자에 비해 훨씬 떨어지지만 李承晩을 연구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보조자료로서 포함시켰다.

이 글은 主題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되지 못한다. 이 主題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필자의 하나의 예비적 조사의 결과이며 한 편의 素描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글 가운데 李承晩과 金九에 대한 부분에는 필자가 이미 발표했던 拙稿로부터의 借用이 적지 않다.¹⁾ 이 拙稿에 최근의 학계의 업적을 약간 보완했음을 밝힌다.

1) 이 拙稿는 저자의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全訂版(박영사, 1987)에 수록되어 있다.

II. 韓末의 政治思想的 分위기와 自由民主主義의 導入

이 글에서 검토되는 指導者들은 모두 韓末에 출생해 이미 韓末의 國運 쇠퇴기에 각자의 政治思想의 골격을 세웠다. 그러므로 이들의 思想 形成 過程을 살피기 위해 우리는 먼저 韓末의 정치사상적 分위기를 간단히 살펴야 할 것이다.

朝鮮王朝의 末期는 西勢東漸의 時期와 일치한다. 이미 帝國主義의 성격을 갖게 된 西歐 資本主義 國家들은 東아시아로 침략과 수탈의 발길을 옮겼는데 이 「西歐의 衝擊」은 「隱遁王國」인 朝鮮에도 밀려 왔고, 특히 明治 維新을 통해 西歐化의 길에 들어선 日本의 「합포 외교」앞에 1876년 수동적인 開港을 하기에 이르렀다. 5백년을 계속해 온 朝鮮王朝는 확실히 국가적 危機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危機狀況에서 民族的 對應은, 아무런 對備策없는 既存 執權勢力의 守舊의 現狀維持를 論外로 하고, 크게 보아 세 갈래로 나타났다. 첫째가 보수적인 衛正斥邪이며, 둘째가 西歐化를 통해 朝鮮에 새로운 근대적 民族國家를 세우려는 開化運動이다. 兩者는 모두 本질적으로 支配層으로부터의 움직임이며 때로는 權力鬭爭의 성격과 형태를 지녔다. 세째가 朝鮮王朝 體制 자체의 해체를 추구하는 ‘甲午農民戰爭’이었다. 흔히 東學革命으로 불리는 이 運動은 支配層이 아닌 農民層으로부터의 對應이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갈래의 對應과 本질적으로 다르다.

自由民主主義 또는 共和의 民主主義의 理念은 주로 開化派를 통해 朝鮮에 들어 왔다. 이 점에 대해 國史學者 朴永錫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90 년대에 들어오면서 開化派와 일부 民衆勢力에 의한 西歐文物과의 접촉 과정에서 西洋 政治制度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인사들이 獨立協會나 萬民共同會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들 진보적인 인사 중에는 立憲君主制를 주장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극소수이지만 共和制를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朴永錫의 표현을 굳이 따를 필요조차 없이, “당시 專制君主國家體制下에서 王權 내지는 皇帝權을 부인한다는 것은 體制 그 자체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⁵⁾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떤 論理를 세우고 있었던가? 다시 朴永錫의 설명을 빌린다:

立憲君主制의 구상은 歐美 각국을 시찰한 新進政治人과 留學生에 의해 소개 주장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로서는 皇帝權의 부인보다는 정치적 發展成果를 보아가면서 共和制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는 시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첫 단계로 立憲君主制를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그들은 中國을 위시한 아시아의 專制政治制보다는 萬人이 참여할 수 있는 共和制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富強한 歐美의 諸國들이 共和政體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韓國도 專制政治制度를 변혁하여 立憲君主制나 共和制를 채택함으로써 韓國이 富國強兵을 이룩할 수도 있고, 또 富國強兵이 달성되면 外勢를 배격하여 自主獨立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⁶⁾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自由民主主義思想 또는 共和主義는 歐美와 연결했던 지도층 인사를 통해 도입됐다. 이 흐름에 대해 社會學者 愼鏞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흐름은 開港 직후 甲申政變에 관련되어 있던 초기 開化派의 일부가 망명 중에 西歐 市民思想을 직접 체험하고 귀국하여 지도자가 되고 여기에 주로 培材學堂의 교사들, 그 밖의 西歐 市民思想의 영향을 직접 크게 받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룬 흐름이다.⁶⁾

이 흐름을 이끌어간 전형적인 지도자로, 愼鏞廈는 徐載弼과 尹致昊를 들었다. 前者는 甲申政變의 실패 후 日本을 거쳐 美國에 망명하여 ‘西歐 市

2) 그의 『日帝下 獨立運動史 연구: 滿洲・露領地域을 중심으로』(일조각, 1984), p. 6.

3) 위와 같음.

4) 위와 같음, pp. 6~7.

5) 그의 『獨立協會 연구: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체의 사상과 운동』(일조각, 1976), pp. 138~139.

民社會를 長期間 체험한' 사람이며, 後者는 역시 甲申政變에 관련되어 上海를 거쳐 美國에 망명하여 '西歐 市民思想을 광범위하게 체득한' 사람이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開港 前後의 초기 開化派의 영향을 계승하면서 자기의 전통과 西歐 市民思想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最高級의 지식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西歐 市民思想을 도입하여 수용하려 하였다."⁶⁾

歐美와 연관을 맺었던 지도층 인사만이 西歐 市民思想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西歐 市民思想을 받아들인 勢力 가운데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다시 愼鏞廈에 따르면, 이 "흐름은 開港 직후에 이른바 東道西器派의 범위에 속해 있으면서 국내에서 전통적 교육과 신식 교육을 병행하여 받고 改新儒學的 학풍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흐름이다." 이들에 대해 愼鏞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들은 국내에서의 새 社會勢力의 성장과 사상의 변화에 완전히 밀착되어 그것을 반영하면서, 改新儒學的의 전통을 市民思想과 융합시키어 발전시키면서 당시의 문제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 전형적인 인물로 南宮權은 統理衙門의 同文館에서 수학하고 대부분을 전통적 漢學教育을 받았으며, 鄭喬와 高永根은 신식 학교에는 다닌 적이 없고 유학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자 東道西器의 개신유학적 전통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西歐 市民思想의 영향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적극적으로 取捨選擇하려고 하였다."⁷⁾

이 두 흐름이 하나로 조직된 團體가 獨立協會였다. 이 團體의 社會思想은 적어도 3면의 특징을 보였다. 즉 '自主獨立思想'과 '自由民權思想'과 '自強改革思想'이 그것이다. 愼鏞廈는 이 세 개의 思想이 '3각주의 3면'과 같다고 풀이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찰을 제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그들의 思想이 3면의 특징을 보이면서 三位一體가 되어 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외부에서 수입된 思想이거나 서재의 산물이 아니

6) 위와 같음, p. 139.

7) 위와 같음.

라, 당시 주어진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内部의 필요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형성된 生命力 있는 社會思想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⁸⁾

獨立協會의 社會思想 가운데 自由民權思想은 (1) 生命(身體)·財産의 自由權, (2) 國民平等權論, (3) 國民主權論, (4) 國民參政權論, (5) 議會設立論에 걸쳐 있었다. 獨立協會의 이러한 “自由權思想 속에는 의문의 여지없이 實學思想의 民本·爲民思想과 함께 西歐 市民社會의 自然法思想·啓蒙思想의 영향이 들어와 융합되어 있었다.”⁹⁾

獨立協會의 이러한 自主民權自強運動은 1898년 12월 말 朝廷의 守舊派와 日帝의 야합에 의해 탄압됐다. “그러나 獨立協會의 自主民權自強思想이 이루었던 높은 봉우리는 分水嶺이 되어 그 후의 日帝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韓國 민중의 불굴의 애국적 전통을 더욱 높이 쌓아올리게 하였으며 愛國啓蒙運動·抗日獨立運動·民權運動·自強運動·民族文化運動의 원동력의 하나를 공급하였다.”¹⁰⁾

獨立協會에서 활약한 開化派 인사가 주장한 立憲君主政體는, 1907년에 조직된 “新民會에 이르러 확고한 共和政體의 주장으로 바뀌어져 皇帝權이 부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사상면에서 볼 때 획기적 大進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¹¹⁾ 이 新民會는 1909년 大韓帝國의 붕괴를 예견하면서 해외에서의 망명 투쟁을 결의하고 滿洲로 이동했다.

Ⅲ. 日帝治下 抗日鬭爭期の 自由民主主義思想

滿洲로 망명한 新民會 간부들은 奉天省의 三源堡에서 耕學社를 세웠다. 朴永錫의 평가에 따르면, “이 耕學社가 바로 共和的 民主主義 계열의 集結體인 동시에 反봉건·反의세 투쟁과 아울러 근대적 民族國家의 건설을

8) 위와 같음, p. 144.

9) 위와 같음, p. 178.

10) 위와 같음, p. 240.

11) 朴永錫, 앞의 책, p. 7.

준비하기 위한 단체였으며, 또 共和政體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적 민주주의 계열의 民族獨立運動團體의 맥락을 해외에서 제승한 것이다.”¹²⁾ 이 耕學社의 指導者들은 李相龍과 李始榮 및 李東寧 등이었다.

耕學社의 생명은 짧았다. 1911년의 흥작으로 1912년까지 生活苦가 계속되면서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해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中國人의 지배와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곧 許赫이 중심이 되어 扶民團이 “耕學社의 정치적인 이념과 在滿韓人의 민단적 성격을 띤 자치기관으로 재발족하게 되었다.”¹³⁾ 바꿔 말해, “이들 扶民團은 新民會의 共和政體의 系脈이 耕學社를 거쳐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¹⁴⁾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거족적인 獨立運動이 일어났다. 3·1運動, 그리고 3·1運動의 예비 운동으로 東京에서 발표된 2·8 獨立宣言書는 모두 共和的 民主主義를 지향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復辟的 民族主義의 흐름과 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두 세력은 抗日과 獨立運動에는 일치단결해 있었으나 日帝로부터 祖國이 광복했을 때에 復國으로서의 專制君主制나 共和制나 선택의 문제를 놓고는 대립해 있었다.

3·1運動의 산물로 1919년 3월 17일 滿洲와 시베리아의 亡命者들은 滿洲에서 亡命政府를 세웠으며, 4월 10일 中國의 獨立鬪士들은 上海에서 亡命政府를 세웠고, 4월 23일 서울에서도 이른바 漢城政府가 비밀리에 세워졌다. 이 세 개의 政府는 결국 1919년 9월 18일 上海에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세웠다.¹⁵⁾ 臨政은 臨時憲章 제1조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이라고 선언하여 共和政體를 천명했다.¹⁶⁾

臨政이 발족할 무렵 扶民團은 西間島지역을 기반으로 亡命政府를 발족

12) 위와 같음, p. 8.

13) 위와 같음, p. 12.

14) 위와 같음.

15) Bong-youn Choy, *Korea: A History*(Tokyo; Charles E. Tuttle, 1971), pp. 178~181.

16) 朴永錫, 앞의 책, p. 15.

시킬 단계에 있었다. 여기서 臨政은 扶民團에 공문을 발송하여 그 움직임을 억제시키고 扶民團의 대표를 臨政의 議政院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扶民團은 이에 응해 자신을 韓族會로 개편함과 동시에 그 산하단체로 軍政府를 설치했다. 1919년 11월 17일 韓族會와 그 산하단체 軍政府는 臨政과의 협의 아래 西路軍政署로 모습을 바꿨다. 西路軍政署는 본격적인 獨立戰爭의 형태를 취하여 鳳梧洞戰爭과 靑山里戰爭을 비롯한 많은 抗日武力鬭爭을 전개해 나간다.

1920년 2월 西路軍政署에서 離脫者群이 발생했다. 對日抗爭線上에서, 元老들의 敎育·産業優先主義에 반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軍事行動을 주장하는 勢力, 그리고 3·1運動의 여파로 해외에 망명한 少壯靑年派들은 西路軍政署를 이탈하여 光韓團이라는 獨立軍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共和的 民主主義 방식에 의한 全員委員制를 채택했다.¹⁷⁾

이처럼 共和民主主義 세력이 扶民團—韓族會—西路軍政署 및 光韓團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復辟的 民族主義 계열은 1919년 3월 말 우선 大韓獨立團을 조직했다. 그러나 그들의 복벽적 民族主義는 곧 이념적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大韓獨立團에서 이탈하여 臨政을 받드는 이들도 나타났다. 여기서 大韓獨立團도 차차 共和的 民主主義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19년 11월 각지의 獨立運動團體 59개가 통합되어 발족한 大韓靑年聯合會는 이듬 해 4월 臨政 支持를 선언했다. 이로써 그들 역시 共和的 民主主義 계열로 돌아선 것이다.¹⁸⁾

共和的 民主主義 계열은 1922년 8월 마침내 大韓統軍府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복벽적 민족주의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고, 양자 사이의 미묘한 갈등 속에 곧 大韓統義府로 바뀌었다. 大韓統義府에 대해 朴永錫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大韓統義府의 조직은 강력한 軍事力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8團 9營의 독립운동

17) 위와 같음, p. 20.

18) 위와 같음, p. 23.

단체가 통합된 것으로서 이념상의 統一은 결여되어 있었다. 大韓統義府는 북벌적인 성향과 공화적인, 그리고 공화적이면서도 좀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⁹⁾

그리하여 大韓統義府는 분열하게 되었다. 즉 북벌적 民族主義者들이 義軍府를 만들어 나갔고, 이에 분개하여 大韓統義府의 일부 세력이 義軍府를 공격하자 이번에는 이 處事에 격분한 일부 세력이 參議府라는 새로운 抗日獨立軍團을 만들어 臨政 산하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벌적 民族主義 세력은 점차적으로 그 힘이 약화되어 갔고, “이에 반해서 近代 民族國家를 수립하기 위한 이념적 동지적인 團結力이 고조되어 共和的 民主主義 계열은 그 세력이 점차 확대되었다.”²⁰⁾

이러한 추세 속에서 共和的 民主主義 계열은 1924년 正義府로 통합됐다. 正義府는 1926년 1월 正義府 헌장을 발표했는데, 三權分立을 명백히 하여 民主共和制를 채택했다. 朴永錫의 평가에 따르면, “正義府의 수립은 조국 광복을 위한 단순한 抗日獨立運動團體의 수립이 아니라 근대적인 民族國家를 수립한 것으로, 전혀 外勢의 간섭없이 순수한 공화적 民主主義 계열의 民族 主體勢力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亡命自治政府이며 準國家였다.”²¹⁾

Ⅳ. 李承晩의 思想과 行動

이러한 배경에서 李承晩이 自由民主主義를 수용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해나간 과정을 살핀다. 우선 李承晩에 관해, 필자가 새롭게 분석한 몇 가지 자료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李承晩은 1875년 황해도 平山郡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부터 書堂房에 다녔다. 열 세 살 때부터 몇 차례 科擧

19) 위와 같음, p. 25.

20) 위와 같음, p. 27.

21) 위와 같음, pp. 30~31.

에 응시했다가 낙방했다. 우울 속에 생활하던 李承晩은 20 세 때인 1894 년 그의 친구인 申興雨의 형 申育雨가 培材學堂에 입학하여 李承晩에게도 입학할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培材에서 그는 英語를 배웠고 新聞과 雜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새로운 文物에도 눈떴다. 孫世一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培材學堂에 입학한 지 1년 후에는 同校의 영어 교사가 되었고 영문서적과 잡지를 탐독하면서 미국의 民主主義와 생활 철학을 익혔다.”²²⁾

李承晩은 배재 입학과 더불어 基督教에 입교했다. 이후 그의 국내 및 오랜 海外生活은 직접 간접으로 基督教과 관련된 것이었다. “옥중에서도 聖書를 소리내어 읽었고, 호열자의 만연으로 屍身과 섞여 지내는 암담 속에서도 囚人들에게 전도하기에 힘썼다. 당시 『神學月報』에 보낸 그의 「獄中 書翰」은 옥중 경험의 두 가지 긴증한 것이 「첫째는 깨달음이요, 둘째는 감사할 일」이라고 하여 그의 신앙 고백을 보여 주고 있다.”²³⁾

李承晩은 배재에서 改革思想에 접했다. 1896년 초 귀국한 徐載弼이 배

22) 孫世一, 『李承晩과 金九』(일조각, 1970), p. 10. 이 책은 참고문헌 목록에 李承晩에 대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李承晩, 『日本内幕記』, 참마리아 역, 自由黨 신진부, 1954; ② 공보실(편), 『李承晩博士 약전』, 1958; ③ 中川信夫, 『李承晩・蔣介石』, 三一書房, 1960; ④ 『新東亞』, 1965년 9월호 특집, 「李承晩・李承晩主義・李承晩時代」이 특집에는 李丙允의 「정신분석학자가 본 李承晩박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 李承晩에 관한 자료로 다음이 있다.

(1) 大韓民國 公報處(편), 『대통령 李承晩박사 담화집: 정치편』(1952). 이 책에는 대한민국 수립 직후부터 발행일까지의 107편의 담화 또는 연설이 실려 있다. 제 2집은 경제·외교·군사·문화·사회 부문의 것들 148편을 모았다(1953년).

(2) 梁又正(편저), 『李承晩大統領 독립노선의 승리』(독립정정보급회, 1948년 초판; 1949년 3판). 이 책은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다. 상편에는 李大統領의 독립노선에 대한 편저자의 해설이 실려 있고, 후편에는 李大統領의 담화 또는 연설 99편이 실려 있다.

(3) 梁又正, 『李大統領 투쟁사』(연합신문사, 1949).

(4) 梁又正, 『李大統領 건국 정치이념: 一民主義의 이론적 전개』(연합신문사, 1949).

23) 孫世一, 앞의 책, p. 15.

제의 교사로 西洋史를 가르치면서 朝鮮의 改革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李承晩은 徐載弼의 獨立協會와 萬民共同會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李承晩은 더욱 투철한 改革運動家의 한 사람이 되었다.”²⁴⁾

朝廷이 獨立協會와 萬民共同會를 탄압하면서 李承晩은 1897년부터 7년 동안 투옥된다. 그와 함께 獄中生活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獨立協會 친구들이 있었으며, 美國人 선교사들이 찾아와 많은 책과 잡지를 차입해 주었다. 李承晩은 이런 책과 잡지를 읽으면서 몇 권의 책을 번역하기도 했고, 『韓英字典』을 만들어 보기도 했으며, 『帝國新聞』의 논설을 써보내기도 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독립정신』의 저술이다. 이 책의 저술 과정에 대해 孫世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함을 보고 “비록 세상에 나가서 한 가지 有助한 일을 이룰만한 경륜이 없으나 이 어찌 男兒의 무심히 들어 앉았을 때이리요”라는 동기에서 2월 19일부터 5개월 동안 집필한 이 저술은 그가 몰래 써보내던 『제국신문』의 논설과 비슷한 형식으로 「각각 제 책망을 깨달음」 「백성이 힘쓰면 될 일」 「독립과 중립의 분간」 「미국의 독립한 사적」 「헌법정치와 효험」 「일본이 흥왕한 사적」 「아라사의 정치 내력」 등 52개의 토막글로 古今의 각국 역사를 비교하면서 국제 정세를 풀이하고 특히 민중의 각성을 촉구한 순 한글의 口語體 문장의 책이었다.²⁵⁾

이 저술은 옥중에 함께 있던 李東寧, 申興雨, 정순만 등이 함께 읽고 朴容萬을 통해 李商在의 교열을 거친 다음 李承晩의 在美(프린스톤대학 재학) 시절인 1910년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출판됐다. 이 책을 孫世一은 이렇게 평가한다:

23세에 투옥되어 6년 동안 공부한 뒤의 저술이라고고는 하지만 30세의 청년으로서는 놀라운 박식과 함께 뚜렷한 世界觀에 입각한 저술로 朴容萬의 “우리 조선

24) 宋建鎬, 『徐載弼과 李承晩』(정우사, 1980), p. 18.

25) 孫世一, 앞의 책, p. 25.

4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부르는 소리요 또한 처음으로 듣는 소식인지"라는 정치적인 소재를 결들여 출판되자 교포들 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일부 국내로도 흘러들어와 그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독립정신』에 대해 '민족의 성경'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었다. 외교와 여론 환기에 의해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는 이후의 일관된 그의 주장은 이 저술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7년 간의 옥중 생활에서 체득한 것이기도 했었다.²⁶⁾

1904년 특사로 석방된 李承晩은 곧 도미했다. 미국으로 하여금 1882년의 한미우호조약을 이행함으로써 大韓帝國을 원조하게 해야 한다고 閔泳煥과 韓圭高를 설득하고 이를 직접 美國 정부에 교섭하기 위한 特使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때 그는 전통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新文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 세상에 새것이라 하는 것은 각국이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제일 좋은 것으로 택하고 더 精緊히 만들어 통용하는 것인즉 내나라에서 혼자 쓰며 좋다하던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지니, 비록 나의 좋은 것이라도 다 버리고 새것을 준행하여야 능히 부지할 줄로 깨달을지라. 이 생각을 속에 먼저 두고 새것을 보아야 효험이 속할지니 만일 그렇지 못하여 새것도 좀 보고 옛것도 좀 섞어 차차 형편을 따라 변하러 할진대 서전 총제에 오르려 하면서 동원 줄을 다리고 놓지 못하고 같은지라, 어찌 속히 올라 높은 데 이르기를 바라리오. 그런즉 우리 옛법에 제일 긴하게 여기던 것도 다 버리고 변하여 새것으로 대신하기를 작정할지니 이렇듯 작정하고 밤낮으로 변하여 사람과 집안과 나라이 날날이 새것이 되어 장차 일 이십년 안에는 전국이 다 英美國 같이 되게 우리 손으로 만들기를 일심으로 힘 쓸진대 어찌 日本만 못할 것을 염려하리오.²⁷⁾

『독립정신』에서 이미 보였듯이, 李承晩은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외교를 잘 함으로써 獨立을 얻으려는 방략을 취했다. 그의 이러한 發想은 그가 무려 40년의 긴 세월을 국내의 韓民族과는 약한 투쟁적 연대를 유지한 채 해외에서 보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또 그가 強大國 중심의 國際政治學과 國際法을 전공하는 사이 不知不識間에 強大國 중심의 國際政治觀이 체

26) 위와 같음, p. 26.

27) 위와 같음, p. 13에서 재인용. 원전은 李承晩의 『독립정신』(1910), p. 310.

질화됨에 따라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李承晩의 獨立鬭爭의 方法論은 外交·宣傳路線에 치우쳐 있었다. 國際聯盟이나 美國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韓民族의 獨立은 사실상 어렵다는 믿음을 그는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시 獨立鬭爭의 지도자들이 내세운 武力抗爭論이나 實力培養論 등, 民族의 힘을 中心手段으로 파악하는 抗日獨立鬭爭論을 배제하고, 美國務省과의 교섭 또는 國際聯盟과의 交渉에 몰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워싱턴에 歐美委員部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크게 그가 의존하려고 했던 美國 政府는 그를 냉대했다. 프린스턴大學院 시대 그의 은사인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을 비롯하여 國務省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를 냉대했다.²⁸⁾ 그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美國의 輿論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美國의 政治過程에서는 여론이 발휘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日本内幕記』(1941)와 같은 책을 써서 日本의 침략성을 알리는 데 온 정열을 기울였던 것은 이러한 認識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931년 日本이 滿洲를 침략함에 國際聯盟은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李承晩은 이때야말로 日本의 侵略性을 호소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1932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제네바에 도착했다. 中國대표 등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朝鮮問題를 상정시키려는 노력은 좌절되었다.²⁹⁾

그런데 여기서 그가 朝鮮獨立의 한 방편으로 ‘國際聯盟에 의한 朝鮮의

28) 그러나 윌슨을 통해 美國의 상류층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孫世一은 앞의 책, p. 34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프린스턴大學院 재학중 李承晩은 後日 美國의 大統領이 된 윌슨 총장의 가정에 드나들 수 있었는데, 윌슨夫人과 세명의 딸들은 李承晩에게 비상한 흥미를 느꼈었고, 딸들 중 한 사람은 後日 결혼한 뒤에도 그녀의 남편과 함께 워싱턴에서 李承晩의 歐美委員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들 내외를 통해 李承晩은 유력한 인사들과 사귀게 된다.”

29) 위와 같음, pp. 109~112.

委任統治案'을 내어 놓았다 하여 獨立運動세력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滿洲 等地에서 武力에 의한 抗日鬭爭을 벌이던 民族主義者들의 눈으로 볼 때 李承晩의 독립노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日帝와의 직접적 武力鬭爭과 이를 통한 완전한 獨立만이 진정한 獨立路線이었던 것이다.

國際輿論을 움직여 獨立을 얻겠다는 李承晩에게 따라서 余他의 방법 특히 武力이나 그 한 방편인 테러의 사용은 禁忌였다. 그는 테러에 의해 日帝의 고위 관리를 죽이는 것은 西歐人에게는 '야만'으로 보일 것이라고 믿었으며, '야만'으로 보이는 韓民族에게 어느 強大國의 여론이 동정적이겠느냐고 생각한 것이다. 또 日人에 대한 테러는 韓民族에 대한 탄압을 強化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金九의 주도 아래 日帝의 관청이나 官憲에 대한 테러가 행해졌다는 보도에 접하면 이를 나무라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電文을 보냈던 것이다.

國際外交에 의해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李承晩의 國際政治觀은 철저한 黑白論理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는 蘇聯을 세계의 赤化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악마의 나라'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韓半島에 관해서는 帝政러시아 이후 전통적으로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親美反共의 國際政治觀을 갖게 되었다.

李承晩의 이러한 관념은 獨立運動 당시에도 뚜렷하여 臨政에 左派가 들어오는 것을 극력 반대했다. 그는 左派를 共產主義者로 보았고 또 共產主義者들은 모두 蘇聯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左派는 물론 共產黨員의 참가도 주장한 金九와는 자연히 마찰이 있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직후 李承晩은 一民主義를 제창했다. 그는 『一民主義 개설』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면 一民主義는 어떠한 내용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 책자가 그의 측근이었던 梁又正의 책자이다. 여기서 梁又正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를 모두 '反動'으로 단정한다. 資本主義에

입각한 國家體制와 共產主義에 입각한 國家體制는 모두 ‘偽善國家’이다. ‘偽善國家’를 ‘眞正國家’로 대체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一民主義 아래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一民主義 國家觀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中間物로 아는 誤解를 우리는 일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一民主義 國家論은 결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며 또는 그 중간 형태도 아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國家論은 ‘하나’의 반쪽 반쪽을 고집하는 불구자적인 국가인데 반하여 一民主義 國家觀은 ‘하나’의 전체를 전체대로 보는 국가이다.”³⁰⁾

동시에 一民主義는 “同一한 祖先의 자손으로서의 한 민족은 同一한 권리와 同一한 의무를 가졌고 또한 同一한 운명체로서 同一한 대접을 향수 하여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각자의 민족은 민족끼리 뭉쳐서 민족자결할 主權을 세우고 민족 내부에는 제국을 두지 말아서 自民族끼리 착취하는 제도를 없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他民族끼리에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세계의 和平을 유지하자는 것이다.”³¹⁾

여기서 注意를 要하는 점은 一民主義는 李承晩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獨逸에서 교육받은 安浩相의 이론이었고, 安浩相이나 梁又正은 모두 「國家至上 民族至上」을 표방한 李範奭의 民族靑年團(族靑)계열로, 당시 지식인 사회는 族靑의 사상적 경향이 獨逸的 國家主義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族靑이 李承晩과의 제휴를 믿고서 李承晩의 이름 아래 一民主義를 표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李承晩도 뒷날 族靑을 제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李承晩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自由民主主義와 共和主義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제1공화정의 大統領이 된 뒤에 보여준 政治行態는 反自由民主主義의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960년 결국 ‘學生—市民革命’에 의해 權座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30) 梁又正, 『李大統領 건국정치이념』, p. 136~137.

31) 위와 같음, p. 10.

V. 申興雨의 思想과 行動

錦霞 申興雨가 自由民主主義 또는 美國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李承晩의 그것과 비슷하다.³²⁾ 그는 1883년 忠淸道 淸原郡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서울로 올라 왔다. 申興雨의 아버지 申冕休는 李承晩의 아버지 李敬善과 가까운 친구였고, 申冕休는 李敬善의 부탁으로 서당을 차리고 李承晩을 비롯해 다른 여러 친구들의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여기서 李承晩은 申興雨의 둘째 형님 肯雨와 의형제를 맺고 친형제처럼 지냈다.

申興雨는 열 두살에(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했다. 여기서 그는 英語를 비롯한 ‘新學問’을 배웠다. 특히 徐載弼을 통해 自由民主主義를 배웠다. 이 과정에 대해 申興雨는 이렇게 회고했다 :

[.....] 徐載弼 박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1주일에 한번씩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 정치에는 군주 전체 정치도 있지만, 共和 정치도 있고 민주주의 정치도 있는데, 우리 朝鮮 사람도 세계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해서 비로소 民主主義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生命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는 것을 차츰 알았습니다. [.....] 나부터 말이지요, 民主主義 사상이라 하는 것을 배재학당에서 배웠으며 배재학당 안에서는 특별히 徐載弼 선생한테서 배웠습니다.³³⁾

民主主義를 배운 申興雨는 열 여섯살 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머리도 짝았다. 그리하여 申興雨는 “배재학당이 지향하는 바 소위 세 가지 특징을 다 마친 셈이다. 즉, 첫째로 英語를 훌륭하게 배우고, 둘째로 예수를 믿고, 셋째로 머리를 짝았던 것이다.”³⁴⁾ 이것은 그가 배재학당의 理想인 민주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의미했다.

32) 申興雨의 전기로는 全澤堯, 『인간 신홍우』(大韓基督教書會, 1971)이 있다.

33) 위와 같음, pp. 44~45.

34) 위와 같음, p. 47.

“누구보다 어린 나이로 民主主義를 기초에서부터 배운 유일한 학생”³⁵⁾이었던 申興雨는 1899년 배재학당을 졸업했다. “이제는 팔팔한 民主先鋒이 되었다.” 1901년 德語學校에 입학한 그는 學生會를 조직했다. 그러자 學部大臣은 학생들이 日本에 망명중인 朴泳孝와 연락해서 政府를 전복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申興雨를 체포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그는 李承晩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다.

출옥과 더불어 1903년 도미하여, 그해 봄부터 1911년까지 만 8년 동안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공부했다. 『인간 신흥우』의 말미에 있는 그의 영문 이력서에는 그가 예과를 거치고, 의과대학 2년을 다니다가, 1907년부터 문리대에 적을 두어 경제·사회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ology)에서 1910년에 학사, 1911년에 석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930년 그는 모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런데 『인간 신흥우』의 본문 부분에 실린 신흥우의 회고에는 자신이 政治學을 공부했다는 대목이 나온다.³⁶⁾ 이렇게 보면, 그는 미국의 정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극소수의 한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인데, 어쩌든 그는 정치학 공부를 통해 美國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확실히 습득했다고 하겠다.

申興雨는 1911년 귀국하여 6월 모교인 배재학당의 교감으로 취임했고 1912년 1월 제4대 堂長으로 임명됐다. 韓人으로는 최초였다. 1920년 堂長職을 사임할 때까지 그는 “인민 하나 하나가 다 王이다”라는 主權意識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³⁷⁾ 그러나 그에게는 ‘친일파’라는 소문이 따라다녔으며, 3·1운동때 평양의 한 병원의의 입원은 이 소문을 정당화하는 자료로 쓰였다.³⁸⁾ 1920년 1월 그는 마침내 권고사직된다.

1920년 8월 미국 議員團이 방한했다. 韓人들은 그들의 방한을 독립운

35) 위와 같음, p. 48.

36) 위와 같음, p. 72.

37) 위와 같음, p. 117.

38) 위와 같음, pp. 132~133.

동의 차원에서 환영했다. 이때 申興雨는 YMCA의 지도자로 많은 활약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YMCA의 총무로 선임됐다. 그는 1935년까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시기에 국내에서의 民族運動은 문화 운동 또는 불산장려 운동 또는 자치 운동과 같은 소극적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은 申興雨에게 적합했다. 그의 전기 작가가 지적했듯이, “申 박사는 평소부터 폭력과 과격 행위를 배제하고 그보다 개인의 자성과 인민의 실력 양성이 급선무이며, 누구보다도 西歐 민주주의에 젖은 그로서는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절호의 찬스로 삼았을 것도 짐작이 간다.”³⁹⁾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 세 가지 運動을 일으켰다.

첫째로 그는 [……] 국제 외교를 통하여 민족의 독립을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때 그는 YMCA를 언제나 공군기지 모양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둘째로 그는 興業구락부라는 일종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민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해외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資金을 대어 주는 하나의 정치적 秘密結社였다. 셋째로 그는 農村事業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은 주로 농촌의 靑少年들과 農民의 주 상대였지만, 국내의 모든 靑少年들에게 기운을 넣어주고 살 길을 열어 주는 하나의 민족 開發運動이었다.⁴⁰⁾

그의 이러한 수준의 운동도 1930년대 후반에는 日帝에 의해 탄압됐다. 興士團 제통의 修養同友會 사건이 있는 뒤, 西大門 경찰서는 興業구락부 회원들을 일망타진하여 검거했다. “1938년 여름 어느 날 돌연히 申 박사와 李建春 具滋玉 李寬求 崔斗善 洪秉德 鄭春洙 具永淑 朴承喆 李萬珪 등이 일제히 잡혀 西大門署에 구류되었던 것이다.” 그는 기소유예로 95일 만에 석방됐다.⁴¹⁾

그는 1939년 9월 제 6대 교장으로 다시 培材로 들어갔다. 日帝의 탄압 아래 “원치 않는 創氏改名”도 했고 [……] 몇 번 시국 강연에도 끌려다니

39) 위와 같음, pp. 180~181.

40) 위와 같음, p. 181.

41) 위와 같음, pp. 257~258.

다가 [……] 드디어 日本이 英·美國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내리기 약 5 개월 전에 학교장을 사임하고 말았다.”⁴²⁾ 『인간 신흥우』의 본문에는 없으나 말미의 영문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1942년 ‘不敬罪’로 다시 투옥됐다가 모든 공직으로부터 물러난다는 조건아래 석방된다.

해방이 되었으나 申興雨의 행동의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駐日代表部大使로 잠시 일했고, 제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4명의 후보들 가운데 4위로 끝나고 말았다. 제 1 공화정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투쟁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1959년 별세했다.

Ⅵ. 金九의 思想과 行動

李承晩과 가장 대조되는 民族의 지도자가 白凡 金九였다. 출신, 교육과정, 성장과정, 투쟁의 이념과 방략, 民族觀, 이 모든 것에서 白凡是 李承晩과 대조적이었다. 빈한하고 문벌이 뚜렷하지 못한 집안에서 약간의 漢學 이외에는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 이가 바로 白凡이다. 李承晩이 서양의 문명에 눈뜬 지도자들의 自主改革運動인 獨立協會에 관여했던 것과 白凡이 서양에 반대해 일어난 東學에 몸을 담고 東學軍의 一員으로 倭兵과 싸웠던 것도 대조적이다. 白凡에서 우리는 이 나라 民衆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버림받은 계층인 白丁과 그리고 凡夫를 의미하는 그의 雅號 白凡에서 벌써 그의 平民主義는 발견된다.

白凡의 知的 및 정치적 成長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은 그가 27 세인 1903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그는 基督教로 개종한 것이다. 이 基督教로의 개종을 통해서 서양 학문에 접하게 되었고 또 그 양자를 통해 새로운 價値觀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基督教로의 개종의 결과로 新民會運動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또한 基督教를 중심한 韓國의 독립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1912년 日帝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포함되어 영어

42) 위와 같음, p. 260.

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건으로 말미암은 감옥생활은 白凡의 정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日帝와의 투쟁과 이를 통한 民族의 독립이야말로 자신이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基督教을 통해 습득한 自由의 가치가 內面化한 것도 이를 계기로 해서였다. 自由에 대한 그의 신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뒷날 그는 “나의 政治理念은 한 마디로 표시하면 自由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自由의 나라여야 한다 [……]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獨裁政治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同胞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결코 獨裁政治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 외쳤던 것이다.⁴³⁾

나라 잃어 日帝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韓民族에게 自由란 우선 獨立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大韓獨立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獨立이요”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大韓의 완전한 自主獨立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金九의 소원은 이것 하나 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⁴⁴⁾

이처럼 白凡의 政治思想은 自由와 民族으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建國의 바탕으로 삼으려 하였다.

확실히 白凡은 민족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점에 李承晚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白凡의 民族觀을 보기로 한다 :

43) 金九, 『白凡逸志』(광명출판사, 1968), 부록 「나의 소원」, p. 7.

44) 위와 같음, p. 1~2.

哲學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學說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血統은 영구적이다. 일찍 어느 民族 내에서도 혹은 종교로 혹은 學說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하여 두 派 세 派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民族이 없거니와, 지내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民族은 필경 바람 잔 뒤에 草木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로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라는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思想도 가고 信仰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民族단은 영원히 興망성쇠의 共同運命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民族觀이 內面化되어 있는 白凡으로서는 이데올로기의인 순수성을 내세워 美國에서의 韓國 민족주의 운동의 단결을 지속시키지 못한 李承晩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또한 白凡은 1920년 이후 李承晩의 臨政이 탈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李承晩이 자기와 이념을 달리하는 뛰어난 民族主義者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결된 獨立運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는 李承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도 않았다.

李承晩과 대조적으로 白凡은 1926년과 1942년 그리고 1944년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자신과 이념을 달리하는 民族主義者들과 집단들을 단결시키고 그러한 상태에서 獨立運動을 이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試圖의 延長이 바로 1948년 南北協商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李承晩은 1948년 單選單政으로 우선 問題解決의 始發을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單選單政은 白凡에게는 韓國民族主義에 대한 배반이었고 자신이 한 평생 추구해온 理想과 目標에 대한 완전한 否定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는 그 否定을 否定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이 平壤에서의 ‘南北代表者 연석회의’에의 참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그에 게 南北協商은 그가 평생을 바친 統一·獨立투쟁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45) 위와 같음, pp. 3~4.

당시 金九의 심경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1948년 2월 10일 발표된 「3천만 同胞에게 泣告함」이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一身의 구차한 安逸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老革命家의 충정어린 성명에는 分斷에 직면한 조국의 現實에 비장히 도전하는 韓國民族主義의 고귀한 이상이 담겨 있다.

白凡의 政治思想에 대해 정치학자 梁基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비록 金九의 ‘통일 독립 및 近代化된 韓國’의 추구 노력은 고도로 이상적이고 분명히 현대적이었으며, 그리고 때때로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現實主義 결여와 실제적인 이상실현의 비효율성 때문에 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그의 일생과 人生 목표 및 理想은 근대 韓國民族主義 운동의 합리적이고도 통일적인 추구의 상징으로 의연히 살아 있다.⁴⁶⁾

VII. 맺음말

이제 간단히 줄여 본다. 李承晩과 申興雨의 경우는 그 시대의 右派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의 참가 또는 그 영향, 미국 선교사가 세운 서구식 학교에서의 교육, 기독교의 수용, 미국 유학 및 생활이 중요한 매개였다.

金九의 경우에도 공통점이 나타난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념적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新民會에의 참가와 기독교의 수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가 주로 사회주의적 세력이 아주 약한 미국에서의 외교·선전적 독립 운동에 전념해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미국적이었고 반공적이었음에 반해 후자는 주로 반공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던 중국에서의 투쟁적 독립 운동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는 물론 공산주의자와도 統一戰線을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키웠다는 점이다. 여기에 金九의 사상과 행동이 훨씬 더 民族主義의이었고 統一指向의이게 된 바탕이 있었다고 하겠다.

46) 梁基善, “金九의 民族主義 운동”. 『서울명론』, 1975년 9월 4일, p. 13.